



4면
만 60세 이상고용기업 지원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음 5월 13일) 제28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해야”

도내 209개 단체들, 추진 연합 출범
“전북 존립과 직결되는 선택 아닌 필수”

도내 경제계를 비롯해 체육, 사회, 건설·교통, 여성계 등 209개 단체들이 전북 발전의 필수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연합'이란 기구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날 오전 전북도청 야외 광장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위원장들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50년 항공 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고, 전북도가 동북아 물류허브의 꿈을 꾸게 해 준 필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온 국민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도민의 간절한 비탄과 달리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느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항건설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일부 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갯벌 훼손은 이미 2006년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이 된 문제로 결론이 난 사항을 다시 꺼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삼십 년을 마음 졸이며 개발민을

가다려 온 도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항은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글로벌 무역의 시대, 공항 없는 물류 거점은 성공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항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전북도의 소멸을 가속시키는 일이며, 새만금이 지닌 무한 발전가능성의 싹을 밟아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들은 아울러, “김제공항은 공사계약까지 마치고도 무산되고야 말았고 그 이후, 국제공항 건립까지 우리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1만년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들은 “우리의 목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속한 착공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며 “앞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도민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의 상상이 곧 평화’ | 시도지사협,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수도권 광역 지방정부가 21일 한반도 미래를 주도할 청년들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2021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남북의 현실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만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평화경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해 정책 반영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행사는 명동 카루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청년의 상상이 평화가 된다'를 주제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평화는 맑은 공기요도 같다”며 “평화를 누리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들이 한반도의 앞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평화를 꿈꾸고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평화경제'와 '평화통일'에 공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런 기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변명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유망하고 신선한 '꿀템'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돼 청년이 만들어가는 '평화경제 생태계'의 가능성을 엿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프닝 행사는 작년도 수상팀인



한반도 미래를 주도하며 청년들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2021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가 서울 명동 카루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1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년들이 상상하고 행동하는 평화경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탈북민과의 네트워크 통해 MZ세대에 북한 정보 공유 생각의 공백 메워줄 방향으로 사업 추진” 주문

“팔도락! 오늘 점심은 어때?” (대표 강주은), 통일로 통하는 보드게임, 통풍부어 (대표 김인희)가 지난해의 프로젝트 참여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평화경제 실현에 있어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 패널로는 이승창 서울 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임현숙 북한 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강주은 팔도락 대표가 참여했다.
이승창 교수는 지난해 오픈레이블 인큐베이팅 과정 참여자로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실현(사업화)된 것에 대한 소감을 강주는 팔도락 대표는 지난해 오픈랩 프로젝트 대상수상자로서 사업 참여 후기와 아쉬웠던 점을 진솔하게 얘기했다.
임현숙 교수는 이 사업이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불가능한 점을 들어서 탈북민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MZ세대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생각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을 주문했다.
김지수 대표는 MZ세대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 '경제+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으로 청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성환 사무총장은 토크콘서트 마무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오픈랩 프로젝트가 청년들이 설계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재미있는 상상놀이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국가 시범단지 최종 선정

2024년까지 3171억 투자

전북도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조성중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가 2006년부터 추진하는 탄소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단지가 조성단계부터 탄소중립의 실현과,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은 이번 선정을 통해 앞으로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건축물 설치, 스마트교통 인프라설치, 물순환관리과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24년까지 3,17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입주기업의 에너지 지원비는 15%이상 확보되고, 120개 기업의 생산성 30%이상 및 녹색공간 조성확

대로 탄소배출 저감을 20%이상 향상되고, 4,100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선정을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3개소 중 전국 유일하게 전북도에 2개 단지(새만금, 전주탄소)가 스마트그린국가시범단지로 조성돼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

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국토부 공모 선정으로 탄소산업의 메카인 전주탄소국가산단이 새만금산단과 더불어 대한민국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하고, 전북도가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간이 통(通)하고 느낌이 통(通)하는 여행, 통통 군산’